

청소년소비자의 자아존중감과 또래동조성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

윤 정 혜(인하대학교 교수) · 송 현 주(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)

이 정 화(인하대학교 통합과정)

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소비자의 소비주의 성향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를 보고, 청소년소비자의 자아존중감, 또래동조성, 사회인구학적 특성[개인특성: 성별, 연령, 용돈액수, 아르바이트 여부, 어머니 특성: 교육수준, 취업여부, 가계특성: 가계소득, 주거형태(전월세, 자가), 학교특성: 학교지역(서울 강남, 강북, 인천)]이 소비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. 연구대상은 서울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생이다.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3단계 층화방식에 의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, 서울과 인천의 표집비율은 2:1로 하고, 학교계열, 성별, 학년을 고려하여 모두 21개 학교를 선정하였다.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386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. PASW 18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, 표준편차를 구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행하였다.

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청소년소비주의 성향은 고급/모방차별화, 외모지향, 동조소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, 둘째, (1)청소년소비자의 고급/모방차별화 소비주의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, 용돈이 많을수록, 가계소득이 높을수록, 반사회적 행동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, (2) 청소년소비자의 외모지향 소비주의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, 연령이 높을수록, 용돈이 많을수록,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안 하는 학생보다, 인천학생이 서울의 강북학생보다, 독립적행동 또래동조성과 반사회적행동의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고, (3) 청소년소비자의 동조소비 소비주의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,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.

이 연구결과로부터 첫째, 학생들의 용돈과 가계소득이 많은 가계의 청소년소비자들의 고급 또는 연예인을 모방하는 차별화소비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 자원의 양극화가 표출된 소비의 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. 둘째, 용돈이 많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외모지향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. 일하여 번 소득을 장기적인 자식의 발전을 위한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. 셋째, 서울의 강북 학생보다 인천학생이 외모지향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. 넷째, 반사회적 행동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고급/모방차별화 소비주의 성향이 높고, 독립적 또는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외모지향 소비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소비자의 또래동조성이 과시적 소비와 외모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다섯째,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급/모방차별화, 외모지향 소비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이미지가 여성에게 과시적 외모지향소비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남성과 여성의 양분된 성역할 이미지 외에 성역할을 초월한 역할 기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여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. 여섯째, 동조소비 소비주의 성향이 높은 여학생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내면의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